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11/1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2024.1.22~2026.10.19)
 - 여름성경학교 VBS(6/18~22)
 - 목자부흥의 밤 및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의 밤(6/25)
 - Grace Encounter 주말 수양회(6/29)
 - 사역자 및 그룹장 모임(7/2)

가정교회 예배안 2024. 06. 16

6월 셋째 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2)? (마태복음 5:13-16)

■ Welcome

기억나는 학교 (교생)선생님과 기억나는 이유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마태복음 5: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 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서론

교회는 교회의 본질대로 살아나갈 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 부패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 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 발전하고 뛰어난 문명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 관찰 질문: 그렇다면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해답 1. 복음을 들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13~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는 원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자연히 우리는 부패와 싸우는 짠 맛으로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려면 그 음식에 섞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빛을 내려면 높은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곳에 올려져야 합니다. 단지 상 밑에 놓아서는 빛 구실을 못합니다. 김광신 목사님의 “가라코”서 순종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갔으므로 은혜교회 선교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선교를 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는 소금과 빛의 본질을 갖추었으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적극적으로 짬맛이 필요한 곳에 빛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합니다. 정글이고, 회교권이고, 공산권이고, 멀고, 더워도,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편하고 안락한 곳을 떠나 당시 미개인들이 여겨진 조선 땅에 와서 일생을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1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네주엘라의 야노마미족에게 선교하시다 순직하신 김순성 선교사에게는 가는 자체가 중요하였습니다. GMI의 많은 선교사들이 구 소련에서, 인도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되려면 복음을 들고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과감히 발을 떼어 봅시다.

✿ 적용 질문 1

1)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답 2. 부패와 어둠에 맞서야 합니다(13, 15절).

(13, 15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당연하지만 소금은 소금이 되려면 부패하는 균과 싸우고 빛은 어둠과 맞섭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든지 하루하루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느 곳에서 살든지 세상의 물결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둔 세상은 빛이 비추면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 때. 어떨 때는 핍박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은 늘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다고 타협해 버리면 소금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섭다고 힘들다고 상 아래만 있으면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감히 그리고 결단하고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박을 받으리라”

TD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은혜교회 재정의 50%가 선교에 쓰여지는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적용 질문 2

1) 삶에서 믿음으로 맞서기 보다는 타협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크리스찬으로 부패와 어둠에 맞서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담대하게 도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때 나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해답 3. 교회가 교회되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의 지도력이나 어느 교회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선교에 들러리를 서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자 총사령관이 되셔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유대인들로 시작한 교회가 순식간에 로마제국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6-47)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어린 성도까지 기도예에 전념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단발성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더 큰 승리를 주십니다.

✿ 적용 질문 3

1)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들고 나아가 부패와 어둠에 맞서서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니다.